"지역민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언론되길"

●광주매일신문 29년 애독자 박진영 리더스 대표

하루 시작은 신문 읽기…'사회 기사·칼럼' 관심

"언론 역할 지대…지역민 의식 향상 이끌어달라"

"매일 아침 광주매일신문을 보고, 관심 있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메모해 보관한 지 어느덧 29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주고, 시·도민의 삶과 권익 신장에 노력하는 광주 전남의 정통성 있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광주매일신문 장기독자이자 애독자인 박진영(60)씨는 본보 창사 32주년을 맞아 축하와 바람을 담은 메세지를 전했다.

광주 북구에서 손해보험총괄법인 '리더스'를 설립, 운영 중인 박 대표는 29년 전부터 광주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애독자다.

박 대표는 광주매일신문과 매일경제를 구독, 아침에 광주매일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 후에는 매일경제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박 대표와 광주매일신문의 첫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대표는 보험회사에서 근무, 회사에서 광주매일신문을 처음 봤다.

이후 매일 신문을 보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과 애정이 생겨 1995년부터 자택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박 대표는 "사회(6·7면)·지역(10·11면)·오피니언(19면) 등 사회적 이슈나 전남 소식에 관심이 많다"며 "특히 사설과 칼럼이 담긴 19면을 집중해서 보면서 몰랐던 내용 또는 감명 깊은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 남겨둔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지면과 기사로는 최인태 박사의 사주 칼럼과 남성숙 부회장의 칼럼을 뽑았다.

박 대표는 "신문을 읽는 독자로서 최인태 박사의 칼럼을 읽을 때면 철학 등 사주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작성한 걸 느낄 수 있고, 남성숙 칼럼도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짚는 것 같아 감명 깊다"고 평했다.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맞아 장기 애독자 박진영씨가 "지금처럼 항상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와 격려인사를 전했다.

창사 32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에 박 대표는 "앞으로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기사를 기대한다"며 "지역민들의 의식 향상을 견인하는 언론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날의 중요한 이슈를 소개하는 '1면의 Today'란을 보고 독자들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론의 형태는 변화됐지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며 "지역의 변함없는 언론으로써 지역민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광주매일신문의 창사 32주년을 축하했다. /안태호 기자

"약자 보듬는 성숙한 지방신문으로 힘차게 도약하자"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 기념식

'정론직필' 다짐·2023 광주매일인 표창

마형렬 회장 "사회정의 실현 앞장" 당부

광주매일신문이 창사 32주년을 맞아 1일 기념식을 갖고 '더욱 성숙한 지방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후 2시 광주매일신문 본사에서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 마찬호·남성숙 부회장, 이경수 대표이사, 박은성 편집국장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례, 사시 제창, 광주매일인상 시상, 기념사, 폐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채만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매일신문지회장은 '정론직필로 지역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지역민의 신문으로 거듭나자'고 사시를 선창했고 임직원들도 뒤따라 제창했다.

이어 창사 3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민병로 남양건설 대표이사, 윤병희 엔와이인포텍 대표이사 등 모기업 임원들의 소개와 오는 26일 제23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에 취임하는 마찬호 부회장에 축하 꽃다발이 전달됐다.

광주매일신문이 창사 32주년을 맞아 1일 오후 광주매일신문 본사에서 마형렬 광주매일신문 회장, 마찬호·남성숙 부회장, 이경수 대표이사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욱 성숙한 지방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애리 기자

또 김영삼 마케팅본부 부국장, 이옥근 편집국 지역특집부 부국장대우, 김상호 편집국 지역특집부 부장대우, 최명진 편집국 문화체육부 기자가 투철한 애사심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2023년 광주매일인'으로 선정돼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마지막으로 '이루자' 구호 제창과 힘찬 박수로 기념식이 마무리 됐다.

마형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사 3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실있는 제작과 안정적 경영 기조를 유지해 준 임직원들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32년 전 광주·전남에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포부를 안고 태동한 광주매일신문이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날 지역 대표 정론지로 우뚝 서게 돼 자랑스럽고 기쁘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꿋꿋한 의지와 도전정신이 밑거름이 된 데 따른 것으로 항상 약자를 보듬고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 지는 언론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 독자들의 시선에 맞춰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기업인 남양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복기자

김수관 상무수치과 원장, 재광해남군향우회장 취임

김수관 상무수치과 원장은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제이아트웨딩홀에서 열린 '재광해남군향우회 제43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김석순 군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20여명과 역대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해남읍 출신인 김 회장은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조선대학교치대학장,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했으며 국내 치과 인플란트 수술 분야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권위자이다.

김 회장은 이날 '해:해남인이여!, 나:나라를 위하여, 가:가정을 위하여, 자:자신을 위하여!'라는 캐치플레이로 취임식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 회장은 "회원 간 친목 도모, 상호 존중, 상부상조하면서 재광해남군향우회를 영구히 발전시키고 향토 해남군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향우들 곁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자랑스런 향우인상에 김갑용(광주대 부총장)·최재훈(북광주세무서장)·김재성(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향우가, 공로상에는 윤정애 여성회 회장이 각각 선정됐으며 총 17명이 수상했다. /오복기자

광주보훈병원, '2023 환자 안전주간' 행사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지난달 30-31일 이틀 간 2023년 환자 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적정진료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주제에 동참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 환자의 목소리를 높여라!' 라는 슬로건 하에 직원과 환자, 내원객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환자 안전 참여제도 설명부스 운영 ▲안전을 위한 '환자 참여' 콘텐츠 공모전 ▲환자 안전 리더십 워크 라운드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간부진 교육 ▲환자 안전 실천 선포식 등이다.

이 중 QR코드로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치료과정의 환자 참여' 홍보 영상에 이삼용 병원장이 직접 출연,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서는 치료과정에 환자의 동참과 제안이 중요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이튿날 오후에는 '환자 안전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는 환자 안전지킴이 33명을 임명하고, 지킴이 대표가 환자 안전 실천 규범 선언문을 낭독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다짐했다.

광주보훈병원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 올바른 환자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오복기자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 동참

담양군의회는 "최근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이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에 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에 함께 했다"고 1일 밝혔다.

챌린지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주민들의 원전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이익 감수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보훈청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

광주지방보훈청은 1일 "전날 오전 11시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에서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해외 파병용사와 기관단체장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로연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이국 땅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파병용사의 공훈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기념 공연, 내빈 소개, 파병부대기 입장, 기념사, 축사, 인사말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정홍식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해외 파병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훈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곡성우체국, '찾아가는 마음상담소' 운영

곡성우체국은 1일 "전날 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음상담소는 우체국 창구 접수, 우편물 배달 등 최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외부 전문 심리상담사가 곡성우체국을 직접 방문, 직원들의 두뇌 건강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1대1 집중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음상담소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상담이라고 하면 뭔가 무거운 것 같아 선뜻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보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소영준 곡성우체국장은 "갑질고객, 직장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등 직무 스트레스가 많을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치유시간을 제공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산 기자

인사

호남대 ▲입학관리처장 최영화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이정복